인화학교 폐쇄절차 돌입

시교육청 개최 청문 학교측 불참…학교법인 설립인가 31일께 취소

교직원들의 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인화학교에 대한 특수교육 위탁 지정 취소가 확정돼 이달 말께 사실상 학교가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청이 해당 학교의 운영법인인 우석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절차를 밟기로 한데 이어 광산구청은 이달말 원생들의 기숙사인 인화원에 대한 시설폐쇄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어서 인화학교 등 3대 시설의 운영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5일 인화학교에 대한 특수교육 위탁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청문을 열어 학교측의 소명을 들으려 했으나, 해당자들이 불참함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애초 방침 대로 오는 31일께 지정취소를 단행할 계획이다.

인화학교측은 이날 오후 시교육청에 팩스를 보내 청문불참 의사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인화학교 측이 특수교육 위탁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더라도 오는 11월1일부터 재학생 전원(22명)이 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별도 학교로 전학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인화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없기 때문에 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이 중단되는 등 학교가 실질적으로 폐쇄되기 때문이다. 즉, 학교측이 법적으로 위탁지정 취소조치를 무효화하고 위탁교육 시설 지위를 회복해도 결국 학생이 없는 유령학교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광주시도 이날 행정부시장 주재로 인화학교 성폭력대책회의를 열어 인화원을 비롯한 우석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재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광산구청에서 열린 인화원에 대한 시설폐쇄를 위한 청문도 인화원 측이 참석하지 않아 광산구가 시설폐쇄 절차를 진행중이다. 광산구와 31일께 시설폐쇄와 위탁시설 지정을 취소를 각각 통보할 계획이다.

광주시도 11월초 우석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사전 통보하고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인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인화원에서 생활 중인 원생 가운데 연고가 있는 원생은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 다른 시설로 전원시키는 등 시설폐쇄에 대비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달 말 인화학교와 인화원에 대한 취소 처분 통지를 하면 내달초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통보할 방침"이라며 "법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지만, 최대한 인화학교 학생과 인화원 원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윤현석기자 penfoot@

설문 빙자 13억 리베이트

제약업체, 의사 850명에 1건당 5만원씩 지급

의약품 사용 후기 설문조사를 빙자해 의사 수백명에게 대규모로 리베이트를 뿌린 제약업체가 또 수사 당국에 적발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설문지 작성 사례비 명목으로 1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한국오츠카제약 영업마케팅 부문 이모(56) 전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반은 또 오츠카제약의 의뢰를 받아 설문조사를 한 시장조사업체 M사 대표 최모(57)씨를 추가기소했다.

수사반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 4월 전국적으로 850여명의 의사에게 자사 의약품에 대한 역학조사 명목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지 1건당 5만원씩 지급하는 수법으로 총 13억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M사는 의사들의 처방액에 비례해 리베이트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 명단과 의사별 설문건수를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의사는 100여건의 설문조사를 해주고 5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 6월 수사반의 1차 수사결과 발표 때도 K제약사의 의뢰를 받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가 드러나 기소된 바 있다. 한편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자체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반 관계자는 "의사들은 '리베이트 쌍벌제'(의사·약사와 제약업체 임직원 동시 처벌제도) 시행 이전에 돈을 받아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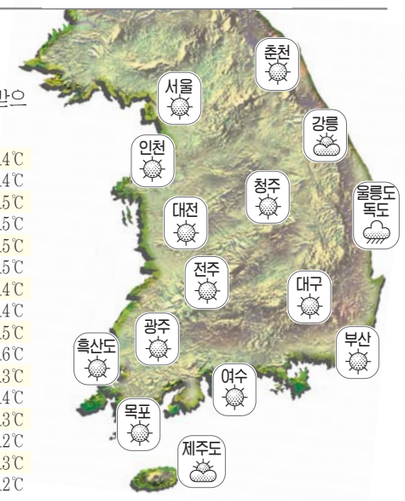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46분 해짐 17시 46분 달뜸 04시 38분 달짐 16시 24분

쌀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대체로 맑겠다.

광 주	맑음	8/14℃
목 포	구름조금	8/14℃
여 수	맑음	10/15℃
나 주	맑음	6/15℃
완 도	구름조금	8/15℃
구 례	맑음	6/15℃
강 진	맑음	8/14℃
해 남	구름조금	6/14℃
장 흥	맑음	6/15℃
순 천	맑음	8/16℃
영 광	맑음	6/13℃
진 도	구름조금	8/14℃
전 주	맑음	5/13℃
군 산	맑음	6/12℃
남 원	맑음	3/13℃
흑산도	구름조금	11/1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먼바다	북서~북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먼바다	북서~북	2.0~4.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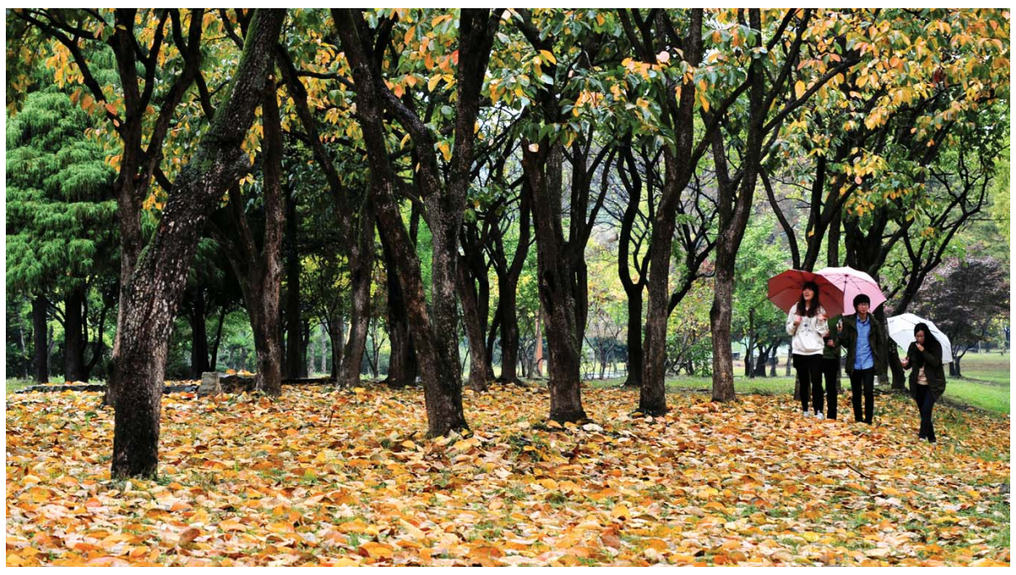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보통	관심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먼바다	북서~북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먼바다	북서~북	2.0~4.0m

	밀물	썰물
목포	00:09 12:43	05:44 18:12
여수	07:41 19:54	01:15 13:4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6(수)	27(목)	28(금)	29(토)	30(일)	31(월)
날 씨						
최저/최고	5/17	7/19	10/20	10/19	11/19	10/20



가을비와 낙엽 가을비가 촉촉이 내린 24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나뭇잎이 수북이 쌓인 길을 걷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올겨울 광주·전남 한파 잦을 듯

동장군 '오락가락' 변덕스런 날씨

올해 겨울 광주·전남지역은 기온의 변동폭이 크고 대체로 춥겠으며 일부 지방에는 큰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24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날씨 전망자료에 따르면 다음달 광주·전남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일교차가 크겠으며 서해안과 내륙산간지방에는 눈이 오겠다.

겨울철로 접어드는 12월에는 대륙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의 변동폭이 크겠으나 기온은 평년(3~5℃)과 비슷하겠으며 강수량은 평년(19~34㎜)보다 많겠다. 내년 1월에는 차고 건조한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운 날이 많겠다. 기온은 평년(1~3℃)보다 낮겠으며 강수량은 평년(25~37㎜)과 비슷할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서해안지방에는 많은 눈이 오겠다고 예보했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다음달에는 평년에 비해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12월에는 기온 변동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일교차가 커지는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함은 물론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조선대 전호종 총장 임명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회는 24일 이사회를 열어 전호종 당선자를 제14대 총장으로 임명했다.

이날 오후 광주시 남구 백운동 프라도호텔에서 이사 9명 가운데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현욱 이사장이 전 당선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전 당선자는 지난 9월 직·간접 혼합형으로 치러진 총장 선거에서 2위 득표자로 복수추천됐으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임했다. 전 총장 취임식은 다음달 10일이며, 임기는 4년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성화대학 교수·학생 교과부에 "기회 달라"

존폐의 갈림길에 선 강진 성화대학 구성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에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성화대학 교수·직원·학생 일동은 2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공정한 임시이사를 파견해 내실있는 대학으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전달했다. 구성원 70여명은 이날 상경해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집회를 하고 구성원 일동, 총학생회, 과대표 등 명의의 청원서를 전달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